

일반 재단법인 시레토코자연대학원대학 설립재단 설립취지서

근대이후, 세계적 규모로 전개된 발전과 성장은, 자연환경의 파괴 및 오염,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인듯한 문명 그자체가 지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연쇄의 우주적 질서를 엄숙히 재고한 뒤 그 완전한 조화속에서 인류가 계속 존재할 수있는 길을 찾아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야생생물과 인간사회 사이에는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절멸위기종의 보호 및 생식환경의 보전, 외래종에 관한 대책, 동물에 의한 피해의 방지등 야생생물과 인간사회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공존 및 적정한 관계를 유지하기위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하는 새로운 사상을 창조하고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기술의 창출, 그것들을 실천할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과 인간사회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연구자 및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2005 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시레토코반도 (知床半島) 는 이 이념에 근거하여 연구 및 교육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유빙이 제공하는 풍부한 바다 오호츠크해에 둘러싸여 해안으로부터 고산지대까지 원생적인 자연으로 뒤덮인 시레토코는 바다와 육지가 하나가 된 복합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마후쿠로우(섬올빼미) 및 오오와시(큰 독수리)등의 국제적으로 희귀종이 생식하고 불곰 및 흰줄박이돌고래등 식물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하는 생물이 즐비한 귀중한 생물다양성이 보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전부터 국립공원 및 각종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자연의 보호와 개발 및 이용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 및 행정 그리고 지역주민이 심혈을 기울여 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도의 기저지역은 유수의 농업지대이고 주위의 바다에서는 지속적인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부한 자연을 찾아 많은 방문객이 오고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자연과의 공생에 대처해나오는 지역력 및 주민력 그리고 네트워크의 힘이 키워져 자연자원에 더하여 이러한 사회적 자원력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레토코자연대학구상」은 1986 년에 책정된 샤리초 (斜里町) 종합계획에 포함된 이래 지자체와 민간 레벨의 시레토코자연대학 워킹그룹, 관민협동의 시레토코자연대학 구상협의회와 20년 이상에 걸쳐 검토해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상을 이어받아 자연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국내 그리고 세계의 요구에 부응할 연구와 인재육성을 실천하는 대학원에 상당하는 고등교육기관 「시레토코자연대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개설을 향한 준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설립자 고라이 사카에
설립자 우에노 요우지